

“청소년에 호연지기 심을 터”

크기 수련대회 준비 조달현 청교련 사무국장



미래불교는 청소년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대중 포교도 시급하지만 청소년들의 포교에 역점을 두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죠.

오는 28일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95년 청소년 하계크기 수련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청소년교화연합회 조달현 사무국장.

10여년동안 청교련 수련대회를 이끌어 온 조달현은 “청소년 수련대회는 21세기의 주역인 불교청소년들에게 불교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화·정



유럽 15개국 대학생 조계사 방문

유럽의 15개대학에서 한국어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40여명이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 조계사를 방문했다. 한국외국어대 외국어 연수원에서 오는 8월 11일까지 6주간 한국어 연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조계종 문화사회부 국제국장 조용준씨의 안내로 조계사를 둘러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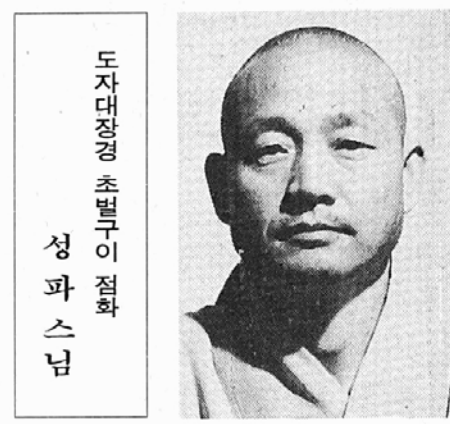
한편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제7차 국제 라이온스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대표들도 팀을 나누어 조계사를 방문했다.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연수교육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지난 2일 서초구 구룡사에서 ‘제15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연수’를 성황리에 거행했다. 어린이지도자 3백여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지도

자의 신앙적자세, 우리춤 우리가락, 레크리에이션행 등 여름 불교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실시됐다. 불교레크리에이션 자격고시에 합격한 오스님, 김은영 등 7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했다.



도자 팔만대장경 초벌구이 접화 성 파 스님

도자 팔만대장경 16만장 2000년 완성

“남북통일 국민 염원 담은터”

“고려대장경이 나라 수호의 비원을 담고 제작 되었듯이 도자대장경도 조국통일의 염원을 담고 제작되는 것입니다. 4년 만에 초벌구이에 들어가게 됐는데 좋은 작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도자대장경을 제작하고 있는 성파스님은 지난달 30일 통도사 서운암에서 도관 초벌구이 접화식을 가졌다.

이날 접화식에는 영축총림부장 청하스님을 비롯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여 16만장 도관의 초벌구이가 시작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원만하기를 기원했다. 성파스님은 91년 6월부터 해인사 고려대장경(8만대장경)의 내용을 그대로 16만장의 도자기로 재제작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고려대장경을 실크스크린으로 조판에 인쇄하고 그위에 유약처리를 해 도자대장경을 만드는 것인데 크기는 가로 53cm 세로 27cm 두께 1.3cm로 해인사 대장경관과 비슷하다.

“2천년에 이 불사를 회향할 계획”이라는 성파스님은 “완성된 16만3천56장의 도관은 휴전선에 모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

40년 모은 재산 사회회향 “뿌듯”

새생명 광명회 3억 기증 김연보살

“부처님 법을 알고 난 뒤부터 모은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어요.”

“영원한 자기 소유의 재산은 없는 법이며 잠시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국빈자, 신체불구자, 불우이웃 등을 보살피는 진주 ‘새생명 광명회(회장 김기원)’에 경남 양산군 불금면 가촌리 산35번지 소재 9천여평의 땅(시가 3억여원)을 기증한 김연(66세, 법명 불심화, 부산시 부산진구 거제2동 1233-19)보살.

27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40여년을 고아원 유모, 풀밭이, 보따리 장사, 노점상 등 온갖 세월의 풍상을 겪으면서 모은 재산을 선뜻 회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세간의 논리가 김연 할머니에게는 적용되



지 않을 듯하다.

술하에 1남3녀를 둔 할머니는 “어머니께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데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자식들의 뜻이 너무도 고맙다며 “좀더 젊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데 나서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겸손해 했다.

할머니는 또 “본의 아니게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지금은 푸근한 마음으로 천지만물이 모두 고맙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병>

라이온스 폐회식서 축원

월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7월 오전 9시 30분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에서 열린 제78차 국제 라이온스대회 폐회식에 참석 축원을 했다. 한편 스님은 같은 날 오후 6시30분 청와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조계종 교육국장 맡아

종월스님은 지난 1일부터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 직책을 맡았다. 또한 스님은 일산 신도사에 대규모 포교당을 건립 신도시 포교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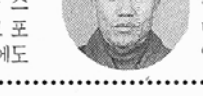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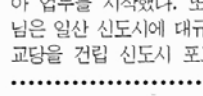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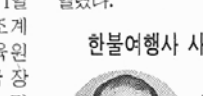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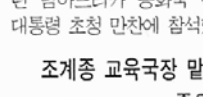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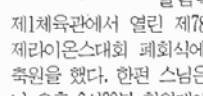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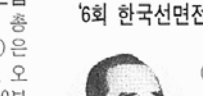
나설 계획이다.

‘6회 한국선전전’에 출품

일당스님 (채색화가 사진 위·법성스님(성리암 주지)은 한국선전협회가 주최한 제6회 한국선전전에 참가했다. 전시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열렸다.

한불여행사 사장 취임

송종연스님(성주암 주지)은 지난달 30일 열린 한불국



선원사 복원 천도법회

성원스님 (강화 선원사 주지)은 ‘선원사 복원 천일장 기도 및 5백 일 천도법회’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선원사 법당에서 보성스님(송광사 을사)을 법사로 초청해 봉행한다.

강원·선방대중스님 책 보시

현장스님(백운암)은 7일 전국 강원과 선방 대중스님에게 ‘선관책진’(불광출판사) 2천8백권을 법보시했다.

미국 자매학교 방문

송석구교수(동국대 총장)는 오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13일 동안

독일 나옴재단 세미나 참석

연기영교수(동국대 법학과·분지 논설위원)는 9일부터 21일까지 독일 프리드리히 나옴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하얀배’로 이상문학상 수상

윤후명씨(불교 소설 작가)는 문학사상사가 제정한 제19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하얀배’이며 연말에 시상식을 갖는다.

미국 워싱턴대 교관교수

이각법교수(서울대 사회학과·분지 논설위원)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연구 교관교수로 16일 출국, 1년간의 연구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매주 산행을 통해 신심을 다지는 금강산우회 회원들은 전국 유명산사를 순례하며 산상법회를 갖는다.

도심에서 뿐만 아니라 산행을 통해 더 많은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나선 신행모임이 있다.

매일 첫째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배낭속에 법회에 필요한 자료집 불구류등을 지니고

“절 있는 산에 오르면 삶이 즐겁다”

매월 정상법회·푸른산 가꾸기로 회원 화합

아담하고 웅장한 산악이 있어 참배하고 그곳에서 즉석으로 법회장을 마련, 주지스님을 법사로 초청 설법을 듣기 때문이다.

금강산우회는 법당에서 법회를 여는 것이 아니다. 마당 바위와 같은 넓은 장소가 있으면 곧바로 배낭을 풀어 산상법회를 진행, 회원들로 하여금 돈독한 신심을 일게 한다.

이처럼 금강산우회의 법회는 일정한 장소나 어떤 틀에 의하지 않고 항상 자유롭게 진행되는 산을 오르다보면 어디든지

주 화요일은 기초교리강좌, 금요일은 경전강독(금강경)등을 통해 불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불교관을 습득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금강산우회는 일과상의 법회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할

의 각종 행사지원, 복지단체등을 비롯 소외된 이웃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환경운동에도 남다른 실천행을 꾸준히

하고 있다.

최근 회원들은 불지각한 행락인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산천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환경파괴의 주요원인인 부식이 잘 안되는 오물등을 수거함은 물론 오가는 등산객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등 환경의 파수꾼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또한 금강산우회는 회원들의 참여의식 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해 신행단, 불교리 등을 개설하는 ‘금강 산물림’이란 회보를 매월 발행해 오고 있다.

금강산우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02) 554-4449

김중근기자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8월 3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및종교학	원전강독 I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